

창립 35주년 맞은 4월회 "4.19정신으로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 김대홍 기자 | ⌚ 승인 2026.04.15 16:29

제27회 4.19 문화상은 '길 내는 여자' 고(故)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수상
제17회 4.19 장학생 11명 선정..."국가 정통성 받치는 4.19정신처럼 미래 세대가 기둥이 되길"

[합동뉴스 김대홍 기자]



14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제35주년 창립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 중이다.

사단법인 4월회(회장 정용상)가 지난 14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4.19민주혁명 제66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4월회 제35주년 창립기념식은 국민의례, 정용상 4월회 회장(現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의 기념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대표의 선창으로 4월회 행동강령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권세준 4월회 사무총장(現 동국대 교수)이 맡았다.

기념사를 맡은 정용상 회장은 “나라 전체가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4.19정신이야말로 나침반이자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축사에서 “4.19 민주혁명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위한 위대한 첫 폭발이었다”고 회고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4월회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제27회 4.19문화상 시상식과 제17회 4.19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4.19문화상은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기풍 진작이나 참신한 민족문화 창달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제27회 4.19문화상은 지난 7일 별세한 고(故)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이 수상했다. 제주에서 태어난 서 이사장은 23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번아웃'으로 다녀온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기로, 서 이사장은 '내 고향에도 이런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총 27개 코스 437킬로에 이르는 제주올레 길을 만들어 트레킹 문화 붐을 일으켰다.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 길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국민 통합을 선도했다는 4.19정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제17회 4.19장학생으로는 환일고등학교 권성대 학생 외 10명이 선발되었다. 장학 선정 대상은 4.19혁명 참여 학교의 후배 재학생, 4.19 유관단체 회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이다. 4월회는 4.19장학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며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27회 4.19문화상을 수상자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을 대리해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이사(가운데)가 수상 중이다. 서 이사장은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7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사진/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공)

한편 정용상 회장은 4월회의 뿌리인 4.19정신에 대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확인시킨 세계사적인 대서사인 4.19정신은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1970년 무명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어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 사단법인화하며 창립된 사단법인 4월회는, 4.19혁명 당시 학생운동 주역과 그 후대들이 모여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순수 민간단체이다.

4월혁명정신의 현창·계승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초청특강 및 심포지움 개최, 4.19문화상 시상, 4.19장학금 수여, 청소년의 역사·문화의식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제17회 4.19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정용상 4월회 회장(중앙 왼쪽)과 김학자 4.19장학재단 이사장(중앙 오른쪽)과 함께 기념 촬영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었다.



김대홍 기자 xpvkf3238@naver.com